

 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	GLOBAL TOP 10 CITY INCHEON 세계 10대 도시 인천
	배포일자	2024년 6월 27일(목) 총 2매	
담당 부서	섬해양정책과	담당 자	• 섬해양정책담당 이승렬 ☎440-4811 • 담당자 이미정 ☎440-4823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제13차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 개최

- 인천시-인천해수청-인천항만공사, 인천해양수산 발전 등 현안해결과 협력방안 논의 -
 - 인천시, 중단된 인천-제주간 항로 운항 재개 협조 요청 -

인천항 관련 3개 기관(인천시, 인천해수청, 인천항만공사)이 상호 소통 및 협력을 통한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.

인천광역시는 6월 27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인천항 및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“제13차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*”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 협의회에는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, 김재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,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참석했다.

*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

- 근거 :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협약('14.12.2)
- 구성 :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,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장, 인천항만공사 사장
- 운영/주최기관 : 연 2회(반기1회) / 참여기관 순번제(인천시 → IPA → 인천해수청)

이번 협의회에서는 ▲인천-제주 항로 운항 재개 ▲제물포 르네상스 추진 관련 항만관계자 의견수렴 철저,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이관 협조 ▲골든하버 공공시설 지자체 이관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.

인천시는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연안여객선(카페리) 운항이 지난해 4

월부터 중단되면서 여객과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어, 인천-제주 항로 운항이 조속히 재개 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에 협조를 요청했다.

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내항 1·8부두 항만 재개발 및 부두 기능 이전 논의 시 항만관계자들과 사전 협의 및 지속적인 소통과 상황 공유를 요청하고, 각 기관에서는 이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으며,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(도로, 공원, 녹지, 하수처리시설 등)이 대다수 시민이용 시설임을 감안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인천시로 관리권 이관을 요청했다.

또한, 인천항만공사에서는 골든하버 내 공공시설(공원)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을 요청하고, 시설 정비 및 이관 조건 등 세부사항을 협의해 이관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협의회는 인천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소통 강화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력을 위해 2015년부터 개최돼 총 86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, 인천항 등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도시 인천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계획이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인천광역시 섬해양정책과	책임자	과 장	지원찬 (032-440-5051)
		담당자	팀 장	이승렬 (032-440-4811)
	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	책임자	과 장	조영선 (032-880-6410)
		담당자	팀 장	황정순 (032-880-6431)
	인천항만공사 기획관리처	책임자	처 장	김영국 (032-890-8010)
		담당자	팀 장	이재황 (032-890-8013)